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 통해 '행정 칸막이' 없앤다

회의 통해 울포해수욕장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야외 노천탕 수심 조절·안전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보성군은 지난달 28일 돌다리 행정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울포해수욕장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울포해수욕장센터는 보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힐링센터로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해수와 보성녹차를 이용한 스파시설이다. 특히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어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중점 논의했다. 야외 노천탕의 최대 수심을 70cm 정도로 하향 조절하고, 안전 관리 인력의 추가 확보, 스펀테라피를 비롯한 체험방 리모델링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방안들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박우육 부군수(단장)는 "앞으로도 돌다리 행정점검단을 통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에 발족하여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군 직영 관리 시설물의 효율 극대화, 5대 통합축제 성공 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중복 투자 등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보성=기동주재본부



2023 농사월력

2022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양시농업기술센터

여수시,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총력

19개 협업부서 T/F팀 구성...한파 저감시설·한파 쉼터 400여 개소 점검

여수시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사전대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먼저 13개 기능 19개 협업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저설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우려시설 안

전관리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저설장비와 자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중장비의 경우 여수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원장비로 지정하고, 응급복구 상황발생시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근로자 등 한파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막 등 각종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400여 개소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시, 적기 영농 동반자 '2023 농사월력' 배부나서

광양시는 농업인의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2023년도 농사월력 2,900부를 제작해 11월 1일부터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배부하며 일부는 농업인 교육 시 배부한다. 농사월력에는 월별로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영농정보가 실려 있고 비와 감자 등 보급종 신청시기, 교육시기, 작물별 주요 병해충 예방, 농작물 관리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농업인상담소 등의 연락처도 실려 있으며, 농사에 밀접한 24절기와 음력을 표시해 전통 농경문화 학습과 가정에서도 유용하다. 이선례 한국생물계산광양시연합회장은 "스마트폰 시대이지만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에 꼭 필요한 것이 농사월력이다"며, "내년 농사에 잘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시, 4일까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세계지질공원 청년포럼' 개최한다



순천시는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자연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1일부터 4일까지 순천과 무등산권 지질공원 일대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청년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순천시와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한국위원회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

하고, 전국에서 모인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에 관심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참여한다. 포럼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소개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내 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학습하고 청년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그동안 순천만습지를 지키고 보전해 왔던 노력과 이를 통한 생태관광의 성공 스토리, 국가정원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제시 등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 자연유산 순천만과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다양한 유산기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미평동, 페타이어의 화려한 변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페타이어 재활용 화분 설치

여수시 미평동 주민들이 지난 10월28일 페타이어를 활용한 '미평 힐링로드'를 조성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체 정신 회복과 주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미평동 4동 주민들은 만성로 상가 앞 인도 200m 구간을 설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미평동의 이번 사업은 페타이어 매립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변의 페타이어를 재활용해 환경문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재활용'이란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 표현이다. 미평동 직원과 주민들은 관내 타이어 가게에서 페타이어를 공짜로 가져와 형형색색 페



인트를 3번에 걸쳐 덧칠한 후 실리콘 작업으로 알록달록한 화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재활용 화분 안에 로즈마리 화분을 넣고 철사로 결합해 꽃꽂이 가득한 '미평 힐링로드'를 조성했다. 도숙자 미평동장은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허브 화분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은 물론 환경 문제까지 고민한 결과물이다"면서 "미평동을 찾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